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 등 자치법 개정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서 촉구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17일 각각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시도 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및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시도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 개

정을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를 거친 뒤 지난 7월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최종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신설,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 명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 등의 내용 담고 있다.

명 의장 등은 이번 면담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 ▲확실성을 따파한 신속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등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요청했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90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의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광역시·도는 14일인 반면 시·군·구는 9일로 돼 있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14일로 연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

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신분증을 통일하고 국회·중앙부처 출입 기능을 함께 담자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채택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원활한 의정 활동과 지방의원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중앙기관 출입 기능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만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 15개 시·도 대표,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했으며 회의 후 오는 25일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시찰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90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현석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결손처분 지방세 100억 넘었다 광주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내년 2월 통합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60명

광주시가 지난해 받지 못하고 결손(缺損) 처분한 지방세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60명에 50억원이 넘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손처분 금액은 106억5000만원에 건수는 무려 12만7632건에 달했다.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지만 398건은 100만원 이상으로, 고액 체납을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했다.

결손처분은 부도, 파산, 행정불명 등으로 빈털터리가 된 납세자에게 5년간 징수를 하지 못할 때 이른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가 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24억원, 지방소득세 18억, 지방교육세 13억원 등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60명, 1577건에 이르며 체납액도 58억원이나 됐다.

광주시는 재산압류,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등을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징수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 의원은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현장확인 등 철저한 징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통합추진위 곧 가동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내년 2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1명씩,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3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본격 가동된다.

통합추진위는 통합체육회 명칭, 정관, 종목별 통합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다. 실무지원을 위해 시 체육진흥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 지원단도 구성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주관하는 국민생활

체육회를 하나로 합쳐 체육 발전의 효율성을 높여도록 했다. 양 단체 통합의 법정기한은 내년 3월 27일이다.

시는 내년 2월까지 통합체육회 설립 등기를 할 방침이지만 조직별, 종목별 통합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의사결정 등 절차에서 필요하면 시가 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 체육회는 47개 정가맹 단체와 5개 준가맹 단체, 3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시 생활체육회는 62개 종목 44만4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창조혁신센터 농수산 창업아카데미 귀농·귀촌인에 인기 높다

수강생 50명 수료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는 전남센터 우선 입주의 혜택도 받는다. 정영준 센터장은 “전남센터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농수산 창업 부문에 가장 역점을 두는 곳으로 지역 농수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창업교육과 정착 지원을 통해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30일부터 약 3주 동안 수료생에게 창업 연계 고소득 농어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수산 창업아카데미를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남도·경북도, 영호남 상생 장학생 10명 뽑는다

각 지역서 5명씩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을 위해 각 지역에서 5명씩 장학생 10명을 선발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북도는 다음달 1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서 영·호남 상생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선발 대상자는 전남과 경북 소재 대학

교 재학생이거나 전남·경북 출신으로 타 시도 소재 대학의 학생이다.

동서회합과 인권신장, 평화 정착에 노력한 대학생 또는 그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립의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5일까지 추천을 받아 장학생 명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석 장기화 될 듯

이사회, 적격자 없어 추천 않기로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공석(空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복지재단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 모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친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사장인 윤장현 이사장에게 추천할지를 놓고 토론을 했으나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복지재단은 조만간 대표이사 재

공고를 할 계획이다.

후보자 접수와 심사, 시의회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나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복지재단은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을 통합해 올해 7월 출범한만큼 이번 공모 재공고로 대표이사 공석 체제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해 내정됐던 군산대 임기욱 교수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술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